

## 제7회 성북구청 인문학강좌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중국인문학 강의

### [제4강] 역사와 인간의 삶: 중국인이 지나온 길과 지혜

- 장소: 성북구 평생학습관
- 일시: 2016년 3월 28일(월) 10:00-12:00
- 강사: 박영순(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 [제4강] 중국인이 지나온 길과 지혜 --'길' 위에서 '길'을 묻다

목차

- 시작하며 : '길' 위에서 '길'을 묻다

一. 처세와 운명의 지혜

1. 현실과 이상 앞에서
2. 희생인가 구원인가

二. 인치(人治)와 치인(治人)의 지혜

1. 사람이 답이다
2. 정치는 음악을 신고

三. 권력과 복수의 지혜

1. 무엇을 위한 복수인가
2. 권력과 욕망이 역사를 만든다

- 마치면서

## 시작하며 : ‘길’ 위에서 ‘길’을 묻다

- 역사는 문화/지혜 : **학[學]→천[踐]→력[力]**
- 지식과 지혜, 무엇이 필요? : **유연한 사고/소통**
- 역사는 현재, 지혜 역시 현재 : 나와 인간/사회에 대한 **물음**
- 시공을 넘는 연속성, 그 가치 : **성찰/실천**
- 역사[古]-현실[今]: “내가 **옛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실로 **나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다.” - “我思**古人**,實獲**我心** 아사고인, 실획아심”

### 一. 처세와 운명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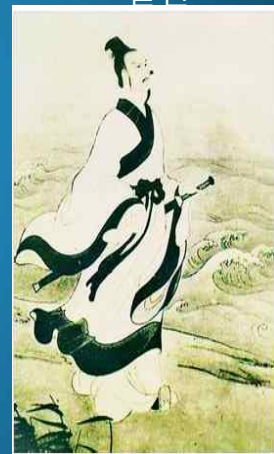
#### 1. 현실과 이상 앞에서: “근심을 만나다”

□ 굴원(屈原 : BC343?~ BC277? 289?)

- 종횡가/외교술: 합종合縱, 연횡連衡
- 장의張儀, 소진蘇秦: 귀곡자鬼谷子の 제자
- 유세와 술수: 대항과 연합
- ‘조진모초朝秦暮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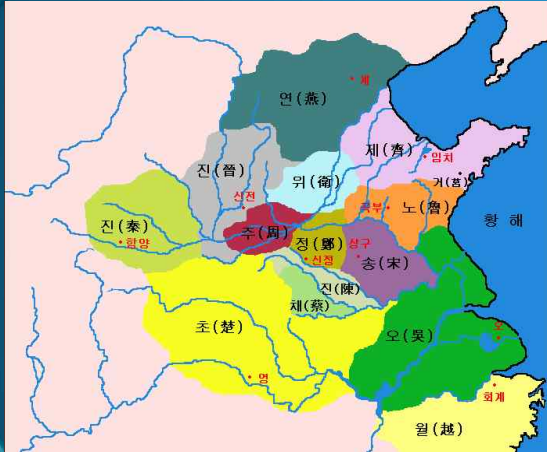
아침에는 진 나라에서 저녁에는 초나라에서 지낸다는 뜻.  
이 쪽에 붙었다 저 쪽에 붙었다 함을 비유.

<굴원>



출처: 바이두

춘추시대(기원전770~기원전476/404)  
 춘추오패: 제·진·합·초·송·진·秦 / 제·진·합·초·오·월



출처: 네이버

전국시대(기원전475/403~기원전221)  
 전국칠웅: 진·초·연·제·조·위·한



출처: 네이버

## □ 작품

- 「이소離騷」: '이'-'만나다' '소'-'근심' '이소'-'근심을 만나다'
- 「어부사漁父辭」(38쪽)
- 홀로 깨어있을까? 더불어 취할까? 예: "중취독성 衆醉獨醒" "여세추이 與世推移"
- 갓의 먼지, 옷의 먼지를 털어내리!  
 예: "신목자필탄관, 신욕자필진의 新沐者必彈冠, 新浴者必振衣"
- 창랑의 물: 맑음-가끈, 탁함-발  
 예: "창랑지수청혜, 가이탁오영; 창랑지수탁혜, 가이탁오족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 □ 굴원에 대한 찬반의 평가(39쪽)

- 비판: 이규보(1168~1241) 「굴원불의사론 屈原不宜死論」  
예: “임금의 총명함을 가리다”  
“임금을 원망하고 풍자하다”
- 긍정: 사마천 『사기·굴원열전 史記·屈原列傳』  
예: “모함, 아첨”: 왕의 총기가 흐려짐->근심을 만남(이소)  
“비방, 이간”: 왕의 신망이 소멸됨->원망이 생김

## □ 백이 伯夷와 숙제 叔齊

- 채미가 采薇歌 (40쪽)  
예: “폭력은 폭력은 낡음”
- 『사기·백이열전』 (41쪽)  
예: “천도 天道는 존재하는가?”

<백이와 숙제>



출처: 바이두

□ 생각과 지혜: “쪼개어도 사과는 사과” (41쪽)



- 억울함과 분노의 표출->해소?
- 현실과 이상은 동시에 존재?
- 창랑지수 滄浪之水: '물' -- '갓끈', '발': 현실적인 화두
- '갓끈'과 '발': 갈등, 대립의 구도 - “쪼개어도 사과는 사과”
- 분절, 타자화->유연, 조화
- 창랑의 물로 무엇을 씻을 것인가?



## 2. 희생인가 구원인가

□ 배경: 한과 흉노의 화친(43쪽)

1) 붓끝에서 결정된 운명: 왕소군

- '낙안落雁': 주)18번

- 화공畫工 모연수毛延壽

- 수계혼收繼婚: 호한야선우->복주누약제선우

- 청총青塚: <내몽고에 있는 왕소군의 무덤> 출처: 바이두



출처: 바이두

## □ 작품

- 당나라 동방규 「왕소군의 원망昭君怨」(44쪽)

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 당나라 이백 「소군원」(44쪽)

예: “살아선 황금이 없어 화공과 어긋나더니, 죽어선 청총을 남겨 애답게 하는구나.”

生乏黃金枉畫工생핍황금왕화공, 死遺青塚使人嗟사유청총사인차

- 이색李穡 「명비곡明妃曲」(44쪽)

예: “장막 앞 편평한 물결은 눈빛처럼 하얗고, 기러기 그림자 끊어진 곳엔 남쪽 구름 검은데”

帳前平波如雪色장전평파여설색, 鴈影斷處南雲黑안영단처남운흑

- 권근權近 「명비곡明妃曲」(45쪽)

일부러 죽지 않고 한의 은혜 보답하자고  
 갇은 능욕 받으며 모진 목숨으로 살아가네  
 얼굴 펴고 한 번 웃음 되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감 주어 한나라의 적을 없애려는 것이라네  
 맑은 이내 마음 뉘라서 알아주리  
 그저 한 가락의 비파를 당기노라  
 곡은 마쳐도 한은 끝이 없으니  
 외로운 무덤가, 가을 풀은 여전히 푸르네

故將不死報漢恩 고장불사보한은  
 隱忍偷生受凌辱 은인투생수능욕  
 花顏一笑非爲胡 화안일소비위호  
 務悅胡心除漢敵 무열호심제한적  
 明明此心誰得知 명명차심수득지  
 惟把琵琶彈一曲 유파비파탄일곡  
 琵琶曲盡恨無涯 비파곡진한무애  
 孤憤秋草今猶綠 고분추초금유록

2) 비운의 여류시인: 채문희 (45쪽)

<서안 란텐藍田현 채염기념관 앞 채염상>

□ 채염(蔡琰, 177년?~239년?)

- 위중도衛仲道와 결혼->사별  
 ->흉노의 좌현왕 유표의 아내  
 ->조조의 도움으로 귀국->동사童祀에게 재가.

- 부친: 한나라 말 학자 채옹  
 ->왕소군을 노래: 「금조」



출처: 바이두

- 「비분시」(45쪽)

- 가치관, 문화충격:

“부자에게 능욕을 당하니 부끄럽고 놀라워라.

스스로 죽는 게 참으로 어려워 묵묵히 구차하게 살아가네.”

- 석계륜 石季倫 「왕명군사 王明君詞」

- 국가와 여인: 희생인가? 구원인가? --주19)

예: 왕소군·세군·해우·채염



<청대 화가 이견李堅이 그린 문희사한도(文姬思漢圖)>

출처: 바이두

<중국으로 돌아오는 채문희(文姬歸漢圖立軸)>

출처: 바이두





## □ 생각과 지혜

- ‘희생’이란: 자기를 버림으로써 좀 더 커다란 보편화된 자기를 획득하는 것,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실현.
-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고, 희생이 없이는 사회적 변화와 발전은 없다.”
- 사회, 자신: ‘비판(반성, 성찰: 발전의 동력, 현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자아희생(변화, 개혁)’이 필요.
- ‘희생’의 부재: 부조리에 의해 형성, 약자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짐. 혜택과 보상이 희생자에게로 귀속되지 않음.
- 국가론 속에서 통합되는 개인의 희생은 일종의 개인의 비극.

## 二. 인치(人治)와 치인(治人)의 지혜

### 1. “사람이 답이다”: 용인(用人)의 지혜 (47쪽)

□ “구신”(具臣: 자리만 채우는 신하)은 피해야...

- “육정”(六正, 바른 신하): 성신(聖臣)·양신(良臣)·충신(忠臣)·지신(智臣)·정신(貞臣)·직신(直臣)
- “육사”(六邪, 사특한 신하): 구신(具臣)·유신(諛臣)·간신(佞臣)·참신(諂臣)·적신(賊臣)·망국지신(亡國之臣)
- 재상의 덕목: 『사가위세가 史記魏世家』(48쪽)
- 하늘에게 물어 점을 친 후 재상을 뽑다 ‘복상(卜相)’

- “사람이 답”이다. (48쪽)

- “곧은 자를 들어 굽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른다.” - 『논어·위정 論語·爲政』

- 주공 周公 “악발토포 握髮吐哺”

“머리를 감다가도 중단하고 밥을 먹다가도 뱉어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 율곡: 상지 上智, 중지 中智, 하지 下智

- ‘신독 愼獨’ (49쪽)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 한다.”

막현호은, 막현호미, 고군자신기독야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 『중용 中庸』

- 민심의 수용: 『맹자·양혜왕 하 孟子·梁惠王 下』

- “하늘은 백성의 눈을 통해 보고 백성의 귀를 통해 듣는다”: 『서경』

## 2. “정치는 음악을 싣고”: 정치와 음악의 상관성 (50쪽)

- “그 음악을 들으면 정치를 안다” 문기락지기정 聞其樂知其政  
“음악과 정치는 통한다” 악여정통의 樂與政通矣

- ‘계찰관악 季札觀樂’

- 정치와 음악의 상관성(50쪽)

치세의 음악(편안함)

“치세지음안이락, 기정화 治世之音安以樂, 其政和”

난세의 음악(원망과 분노)

“난세지음원이노, 기정괴 亂世之音怨以怒, 其政乖”

망국의 음악(슬픔과 비애)

“치세지음애이사, 기민곤 治世之音哀以思, 其民困”

## □ 생각과 지혜

### - '인사가 만사'

“재능있는 자가 가려진 채로 있게 해서 안 되지만  
이름이 높다는 것 만으로 임용해서도 안 된다.”  
능자불가폐 能者不可弊,  
예자불능진 譽者不能進.  
- 『한비자·자유도 韓非子·有度』

### - '천리마와 백락'의 효과

“세상에는 백락(伯樂: 춘추시대 말을 잘 알아보던 상마가 相馬家)이 있는 후에야 천리  
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 한유 韓愈 「잡설 雜說」

### - 음악(백성의 목소리)을 제대로 판별하는 식견

## 三. 권력과 복수의 지혜

### - 중국은 '복수의 나라'?

- “임금이 시해되었는데 신하가 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신하가 아니다.  
자식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  
- 『춘추·은공 隱公』

- “아버지의 원수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지 않고, 형제의 원수는 무기를  
거두지 않으며, 친구의 원수는 같은 나라에 살지 않는다.”  
- 『예기·곡례 상 曲禮 上』

- 초나라 오자서 伍子胥의 부친이 초나라 평왕 平王에게 억울하게 죽자, 이  
미 죽은 평왕의 해골을 꺼내 채찍으로 때리며 부형의 원수를 갚음.

## 1. 무엇을 위한 복수인가: 예양의 복수 “爲知己者死” (51쪽)

-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군자보수, 십년불만 君子報讐, 十年不晚”
- 예양 豫讓: 범행 范行씨와 중행 中行씨를 섬김->지백 智伯의 신하->지백을 죽인 조양자 趙襄子에게 복수

### □ 예양의 복수 (52쪽)

- 진나라가 세 나라(조·한·위)로 삼분
- 사가 四家: 지씨(지백)·조씨(조양자)·위씨(위환자)·한씨(한강자)
- ‘진양성전투’: 지백의 실권장악: 지백+위환자+한강자가 합하여 조양자 위협  
->장맹담(조양자의 심복), 한강자, 위환자와 결합->지백과 가족 몰살->조양자 지백의 해골에서 눈을 빼고 요강으로 씌->지백의 신복 예양, 조양자를 복수
- 예: 52쪽 표
- 『사기·자객열전』

-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를 위해 꾸미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 “여위열기자용, 사위지기자사 女爲悅己者容, 士爲知己者死.”

- “후세에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경계하려 함이네”  
“장이괴천하후세지위인신회이심자야 將以愧天下後世之爲人臣懷二心者也.”

- 복수의 청산: 조양자의 옷을 받아 3번 찢 후 자결: “참의삼약 斬衣三躍”

<숯을 먹는 예양>  
출처: 바이두



<예양의 참의삼약>  
출처: 바이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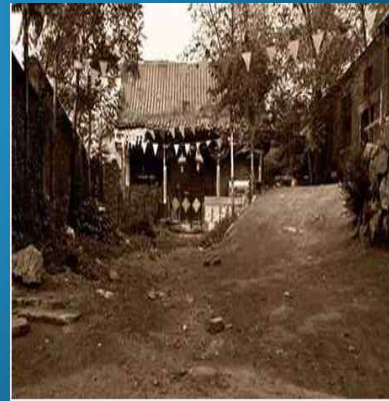


### - 예양에 대한 평가: 명나라 방효유 方孝孺 「예양론」 (52-53쪽)

선비가 출세하여 임금을 섬길 때 임금이 자기를 알아주면 지모를 다해야 한다. 충심으로 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서 환란이 생기기에 없애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 다스려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임금님도 평안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살아서는 명망 있는 신하가 되고 죽어서는 덕이 높은 귀신이 되어 백 대에 이름을 남기고 역사서에 빛나게 된다. 이것이 훌륭한 일이다.……예양이 몸에 옷칠하여 문둥이가 되고 숲을 삼켰을 때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장차 후세에 신하된 자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충충이라고 할 수 있다.

충: “진기지심 盡己之心” - “나의 마음을 다하다.”

<예양의 묘당> 출처: 바이두



## □ 생각과 지혜 (53쪽)

- “복수심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겪은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한 해결책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성이자 본능이다.”  
-『복수의 심리학』

- 복수의 저변: 손해, 억울->공평을 향한 보복

- 보복하고 나면 없었던 것으로 되는지?

- “분노는 그것을 부은 곳보다도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많이 훼손시키는 산酸과 같다.”  
-마크 트웨인

- 공평하게 돌아가는 복수가 과연 있을까?..



## 2. 권력과 욕망이 역사를 만든다: 조고의 욕망 “지록위마” (54쪽)

<조고>  
출처: 바이두



□ 조고(趙高: 미상~BC207년?) 진秦나라의 환관

- 조서 위조: 진시황 순수 도중 사망 직감
- >조서에서 부소에게 왕위 계승을 지시
- >조고, 이사와 함께 조서 조작
- >호해(胡亥: 진시황의 둘째 아들)를 등극시키려 함
- >부소(扶蘇: 진시황 장자), 몽염(蒙恬: 장군)은 흉노 침입을 막기 위해 변방에 있음
- >부소 자결 ->호해 등극

□ 지록위마指鹿爲馬 (54쪽)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뜻.
- 거짓된 행동으로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부림을 비유.

## □ 생각과 지혜

- 「교수신문」: 당해의 사회상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선정
  - 2013년: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 '도행역시 倒行逆施'
  - 2014년: '본말이 왜곡되고 사실이 호도된다' - '지록위마 指鹿爲馬'
  - 2015년: '순리나 상식이 어긋나며 혼란스럽다' - '혼용무도 昏庸無道'
- => 안전불감, 진실불감, 원칙불감, 법치불감, 엄치불감 등 상식과 원칙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
- 2015년 희망의 사자성어:
    -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한다' - '정본청원 正本清源'
    -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 - '사필귀정 事必歸正'

- 마치면서 -

- 역사는 일종의 **문화이자 지혜**
-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교착점**에 자리
- 과거/역사에서 배운 지혜는 “현실의 **배움[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행동[踐]**의 밑거름과 양식이 되어야”...

역사 - 옛사람 ➡ 배움  
↓ ↓ ↓  
현실 - 나 ➡ 실천



- 수고하셨습니다!